

KIPA 컬럼

CHINA와 因緣

陳 今 燮
(在美韓國辨理士·藥博)

歷史의인 '88올림픽을 계기로 CHINA(中國)을 위시한 共產圈국가와 政治와는 次元을 달리하여 Sports와 더불어 Trades(貿易)에서 아주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볼때 이 역시 歷史의인 Big Event로 이역만리 교포들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고 있다.

筆者는 祖上의 德分으로 稀姓인 陳(CHIN)을 Family Name으로 하고 있기에 "CHINA"에서 마지막 "A"를 빼어버리면 "CHIN", 즉 筆者이 姓氏가 된다.

그러기에 지난 70年代 당시 特許廳長이었던 文基祥辨理士님과 WIPO會議에 韓國代表로 參席後 歸國길에 大만(TAIWAN)特許廳을 訪問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廳長이셨던 Ning博士가 초대한 政府高位層의 漫談리셉션에 다수의 中國陳氏, 즉 宗親들을 만나서 깊은 情을 나누는 일이 있다.

뿐만 아니라 USPTO에서 CHIN審査官(中國系)이 多數있고 이중 한 Primary Examiner의 婦人이 같은 美特許廳 意匠심사관인 한국인인 Kay CHIN이기도 하며 中國·대만으로부터 오는 研修生들中 陳氏가 끼일때가 많다. 그때마다 國籍을 뛰어넘어 一家의 情을 나누기도 한다. 이런일이 儒敎에서 옷깃을 스치는 것도 因緣이라던지, 佛敎에서 Karma(因緣)이라던지에 통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난 여름 28명의 해외研修生이 한국의 여섯 분을 위시하여 대거 참가했던 BSKB SUMMER TRAINING PROGRAM에 前年에 계속이어서 CHINA Trainee들도 참석하고 이 한달간의 연수가 끝난후에도 약 2個月間 남아서 實務를 더 익히고 가는 것을 볼때 지금은 비록 적은 건수가 미국과 오가지마는 앞으로 미국을 겨냥한 그들의 야심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이 중국에서 제일크며 北京에 자리잡고 있는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 專利代理部(Patent Agency of the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CCPIT)에서 파견된 자들이다. 마치 國營特許法律事務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中國에 特許手續·紛爭 등 工業所有權의 諸般問題를 이 사무소를 利用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韓國國籍을 가진 出願人(個人이나 會社)은 절대로 中國에 出願할 수 없는 回信을 금방 받았다. 따라서 韓國人이 出願하려면 在外交포명으로 하던지 在外國에 營業을 하는 營業所의 名으로 하면된다.

最近 釜山의 出願人이 在美교포인 친척名으로 출원을 完了한 事例가 있다.

近間에 中國은 自由經濟體制로 轉換하면서 日本보다도 韓國이 輸出投資를 해줄것을 願하고 있는 것은 이곳 中國大使館官吏나 California 工大에 교환교수로 往來하는 韓일빈工大교수인 韓圭煥氏의 지론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의 우수기업체들이 앞을 다투어 中國에 上陸하기 위하여 往來가 잦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투자도 活潑히 進行중인줄 안다. 이때 조심할 것은 뛰니뛰니해도 公業소유권으로 우리의 기술상품을 剽竊같이 보호해 놓고 Business를 始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도 무역이 活潑(?)히 되고 있는데 올림픽以後에 더 政治的으로 가까워지면 더욱 무역이 加速化될 것이다. 이에 편승하여 모든 公業소유권인들이 Beijing으로 北京으로 몰릴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21世紀를 尙한 世界特許業界를 그려보면서 Beijing으로 출장갈 날을 생각해본다.

(위성론 BSKB特許法律事務所에서)